



05

2023

통권 591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가정, 그 복된 함께함! 김운성

특집 I 가정, 그 복된 함께함

04 부모 자녀 손편지

07 네 인생 이끄시는 하나님 만나길… 박종희

08 3대, 4대 오순도순 말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최성남

09 믿음의 가정에서… 이성호·윤기은·신승원·박한결

04



교회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
(만수기 9:23)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20

특집 II 교회와 부모가 함께 다음세대 양육

12 Z세대 사역, 1:5에서 5:1로 신형섭

14 믿음의 부모가 자녀 신앙방향 막는다 이영호

17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신주현

다음세대 청년광장

20 누가 복음을 외쳐! 청년부

22 나만 안 되는 연애 여태공

땅끝까지 이르러

24 ‘한달 계획’이 십년으로… 이정하

26 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외국인들 규옥투안

28 미션·바울…영락시어터 다시 문연다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만남

2023년 5월호 통권 591호



30

영락의 울타리

- 30 제63회 산상기도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 32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박소망
- 34 세상과 연결된 통로 영락어린이집 공미경
- 36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곽선미
- 37 노래는 '숨'…비워야 은혜 커져 인미

아곱의 우물가

- 40 세 번의 연단…주님 온전히 알게 됐죠 김이수

문화광장

- 42 후밀리타스: 위대한 리더십의 완성 방덕종
- 43 순종의 비유 정재원

표지설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은 곁을 내어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 곁에 더 가까이!
감사는 동사다. 웃으며 안아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춤추시게!

교회소식

- 44 2023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외

5월 목회력

- | | | |
|--------|----|---|
| 05 | 금 | •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
| 06 | 토 |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 07 | 주일 | •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찬양예배 성찬, 유아세례식,
원포인트 교육주간 |
| 14 | 주일 | • 가족주일 특별예배, 제직회,
원포인트 교육주간 |
| 15~17 | | •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
| 19 | 금 | • 심방준비회 |
| 20 | 토 | • 2023영락가족운동회 |
| 21 | 주일 | • 교육주일 특별예배,
원포인트 교육주간 |
| 26, 28 | | • 청년선교비전 |
| 28 | 주일 | • 성령강림주일, 사회봉사주일,
다음세대 기도회,
원포인트 교육주간 |

가정, 그 복된 함께함!

김운성 위임목사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3~4)

13세기 이후 남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휴머니즘을 화두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신이 지배하던 시대로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 인본주의는 예술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벌거벗은 조각과 그림이 많이 제작되었는데, 인간은 아름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인간을 추구하게 된 배후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그 방법론으로 소위 ‘근원으로 돌아가기(ad fontes)’를 표방했는데, 이들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돌아가야 할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인간을 만났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당시 대표적인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결별입니다. 종교개혁은 르네상스

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에라스무스가 낳은 알을 루터가 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중세를 비판하고 벗어나려 했다는 점에서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인간의 의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524년에 『자유의지론』을 출판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이에 맞서 그 이듬해에 『노예의지론』을 펴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신의 결정에 반할 수 있는 인간 의지의 가능성에 대해 말했고, 루터는 인간의 의지가 죄로 인해 파괴되었고, 신의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라스무스는 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인간을 주장했고, 루터는 신의 은총을 의지해야 하는 인간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인간 중심의 사상과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지금까지 대립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자로 분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오직을 부정하는 시대 예수님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사사 시대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각자가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극도의 사회적 혼란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각자가 왕이 되는 시대는 중심을 잃은 시대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중심부는 선하고, 주변부는 악하다는 전통 사상을 비판하면서, 주변부에 의해 중심부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남편이 중심이고 아내가 주변이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범림 받는 남편이 많습니다. 또 부모가 중심이고 자녀가 주변이던 질서도 무너져서 자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현상은 권위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하라’고 권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 방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인권’이란 포장지로 껍데기로 포장합니다. 인권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 뜰에서 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간판을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캐나다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역도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여성이고, 그 반대로 되는 어처구니없는 세상입니다.

해체는 종교적 신념도 무너뜨립니다.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종교개혁은 소위 ‘오직, sola’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총,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등입니다. 그

런데 이 시대는 ‘오직’을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에 등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다양한 구원의 길 중 하나라고 말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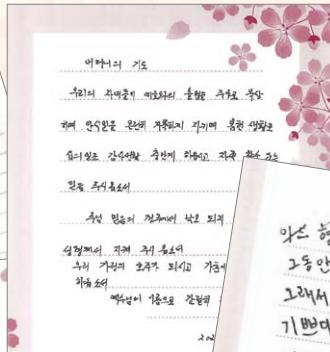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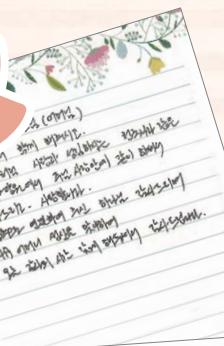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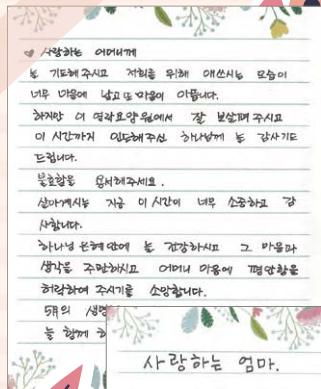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한 ‘혼자만의 문화’도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먹고 혼자 즐기며 혼자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소중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하기도 전에 부모를 떠나 독립합니다.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고독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 곁에 두신 이유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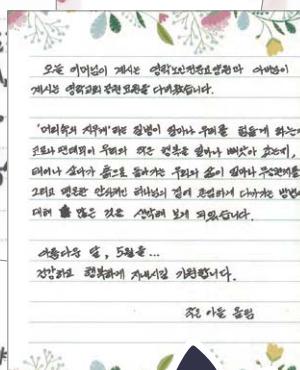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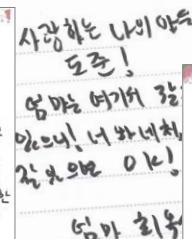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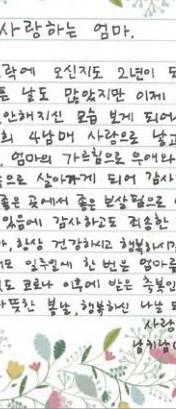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살기’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영락의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만남**

부모 자녀 손편지



작은 힘들마 헤원마
그동안 잘 크고 잘 자고
그래서 넘마는 너무
기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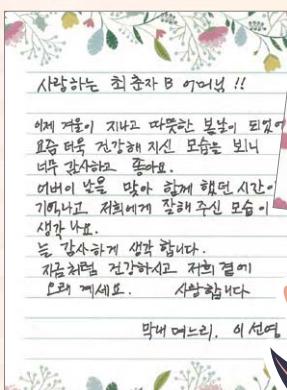
앞으로도 더욱 잘하고
열심으로 살자 가자라
엄마 민팅기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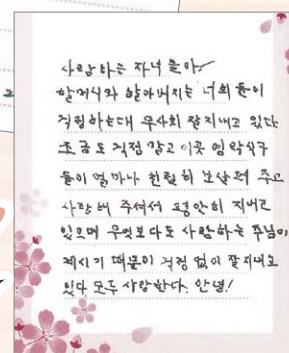
첫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잘하고
열심으로 살자 가자라
엄마 민팅기 쓴



막내 며느리, 이선애



작은 힘들마 헤원마
그동안 잘 크고 잘 자고
그래서 넘마는 너무
기쁘다

앞으로도 더욱 잘하고
열심으로 살자 가자라
엄마 민팅기 쓴

*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노인전문요양원에서 보내온 손편지를 일부 소개합니다.



너희들도 더욱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원합니다. 이것만이 부모님이 원하는 바이며 기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듬뿍 내리시기를 빙어요.

- 서금애 은퇴권사

슬픈 날도 많았지만 이제 많이 적응되고 편안해
지신 모습 보게 되어서 참 좋아요. 엄마의 가르침
으로 우애와 지혜가 충만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남귀남의 자녀 올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니 은혜 감사합니다.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새벽기도 모임 수 있어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그립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 남은 여생 기도뿐입니다.

- 김계화

오늘 어머님이 계시는 영락노인전문요양원과 아버님이 계시는 영락교회공원묘원을 다녀왔습니다. '머리속의 지우개'라는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작은 행복을 얼마나 빼앗아 갔는지, 태어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그리고 평온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곁에 존엄하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작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장조에게

편지를 보내니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이 기분이 아주 좋구나. 매일 만나서 기도한다. 하나님 둘에서 들어주실 것을 생각하니 아주 좋구나.

- 오성애 은퇴권사

빨간 꽃을 보며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소녀 같으신 엄마~ 다섯 아들 딸을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최춘자b 어머님께 막내 드림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안수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며 봉헌 생활로 십의 일조 감사생활 충만케 하옵시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가훈이 되게 하옵소서.

- 한은희

손녀딸 민아예요. 어느덧 가정의 달이네용! 저희 가족을 위해 헌신과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같은 사랑을 저희에게 몸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 민아

네가 영각요양원에 소개하고 영각교회 나가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 나간다고 하니 마음이 매우 아프고 실망되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가 교회 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교회 꼭 나가기를 바라며 네가 교회 나가기까지 기도하겠다.

- □□□

사랑하는 장모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족들처럼 사랑과 섬김하시는 천국 같은 영각요양원에서 주님 사랑 안에 같이 하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가족으로 연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 △△△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걱정하는데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모두 사랑한다.

- ♥♥♥

항상 열심히 사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다. 아무쪼록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쾌한 딸 되기를 기도한다.

- ◇◇◇

항상 보고싶은 딸! 오늘은 더욱더 보고싶구나. 너에게 편지하게 된 것 참 고맙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린다.

- ○○○



네 인생 이끄시는 하나님 만나길…



사랑하는 아들 정원아

네가 태평양 건너 먼 곳으로 공부하러 간 지 벌써 일 년이 지나고 있다. 외국어로 공부도 힘들 텐데 혼자 모든 살림과 일을 해결하고 있으니 더 이상 어린 아들이 아니구나. 대견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쉽고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주님께서 너를 그곳으로 가게 하신 은혜를 늘 먼저 생각한다.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익숙한 곳, 제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너의 선택이 감사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학교 기숙사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생각난다. 군에 입대한 후, 면회로 잠깐 만났다가 부대로 복귀하기 전 너의 표정이 기억난다. 입을 앙다물고 약해지지 말아야지 하는 표정 말이다. 물질적으로 넉넉히 뒷바라지 못 하는 가정 상황에 고민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점점 더 홀로 일어서고 있다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인생 과정 중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으니,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다.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하루하루에 성실하고 충실히 것이다. 네 능력만으로 얻은 기회가 아님을 알았으니, 겸손하게 될 것이다. 모자람도 채워짐도 감사하며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막막함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에게는 솔직해지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네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시간, 너라는 도자기를 정성껏 빛고 계신다. 엄마 아빠가 기도로 후원한다. **만남**



박종희 안수집사
고양·파주교구

3대, 4대 오순도순 말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1~4 중)



불효유삼(不孝有三) 무후위대(無後爲大)는 맹자 이루(離妻) 효행 편에 나오는 경구로 부모 공경하는 세 가지 훈계로 후세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맹자라 하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세 번이나 이사한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자동으로 떠오르는데, 오늘은 맹자의 “불효유삼 무후위대”, 즉 세 가지 불효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맹자는 불효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요, 셋째는 가장 큰 불효로, 자식을 낳지 않아 부모의 근심이 큰 것이라 하였습니다. 선진국 중 가장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은 바로 맹자가 말한 가장 큰 불효가 사회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8%로 선진국 중 가장 낮습니다. 2070년에는 인구가 거의 반 토막 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약 901만 8천 명(2022년 7월 기준 통계청)이며 20세 미만의 청소년은 현재 약 468만 명입니다. 이 추세로 역 산해보면 2070년 한국 인구는 어림잡아 약 3,200만 명으로 현재 총인구 5,141만 명의 60%입니다. 선진국 기준 중 인구 5,000만 명 이상 기준에 못 미치니 선진국에서 탈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 한 쌍씩을 방주에 넣도록 하신 이유를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가정의 축복이 되는 비결을 나타내신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며 부자가 되리라 하셨으니 부자가 꼭 물질만 아니라 행복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장수하는 분이 많아 3대 가족뿐 아니라 4대 가족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성경 말씀과 훌륭한 위인들의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빠, 자녀들 이야기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만날**



최성남 은퇴집사
고양·파주교구
실버타임즈 발행인

믿음의 가정에서…



“엄마 호~ 해줘서 아야 안해요” 세살바기 기도에서 배웁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 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1~22)

30개월 된 첫째 세이가 뛰어가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땅에 부딪히고 아파하다가도 엄마 아빠가 “세이야 기도하자” 하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어… 엄마 아빠 호~ 해줘서 아야 안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괜찮아”하며 또 뛰어갑니다. 10개월 된 둘째 승이는 하나님께서 후회 주실 것을 100% 믿으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는데 주저함이 없

습니다. 기도의 응답과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큰딸 세이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작은딸 승이를 보며, 주님이 주신 소중한 4인 교회의 가장 믿음 좋은 성도 둘을 통해 엄마 아빠의 믿음도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이성호 성도_청년부 주는 나무



20대 방황 기도하며 기다려주신 부모님

샬롬! 저희 가정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어 점점 자의식이 커지고 신앙과 말씀에 대한 의심도 커지면서 따뜻함과 은혜의 자리였던 가정예배는 점점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20대가 되어 대학 진학을 핑계로 도망치듯 부모님 집을 떠나 세상에 나와 살게 되었고, 마치 아담이 선악과

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 낯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저도 세상의 지식에 눈을 뜨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벗어나려 애쓰게 됐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문화는 새롭고 흥미로웠지만, 제가 알던 신앙적 세계관과는 대척점에 있었기에 혼란스러웠던 저는 두 가치관 속에 갈등하다가 세상을 더 사랑하기로 한 것이죠. 가정예배에 참여하기 싫어 본가에 내려가더라도 토요일과 주일을 피해 주중에 짧게 다녀오며, 대신 그 시간을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로 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를 졸업한 후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명력 없이 반복되는 일상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워하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나와의 소통을 바라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없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제게 말씀과 믿음으로 권면하셨던 부모님의 기다림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주 함께하지는 못해도 이제는 가정예배가 다시 감사와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윤기은 성도_청년부 모리아 서기



4대째 신앙유산…우리 가족 주인은 예수



앞줄 왼쪽이 필자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신나게 놀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항상 기뻐하시던 미소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의 신앙과 믿음을 경작하시고 축복하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매주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족을 통해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간증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은혜였습니다.

살다 보면 가족 간에 가끔 보이는 굳은 마음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에 저는 4대째 신앙의 유산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신승원 성도_청년부 꿈꾸는땅



새 삶의 자리서 여호와 아래 알게 돼



지난해 12월 강릉 사천진리 바닷가에 새로운 삶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있으며 막막하던 참에 새해 아침 김운성 목사님의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 여호와이레의 축복 자리에 제가 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평일에는 혼자,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오이코스로 하루를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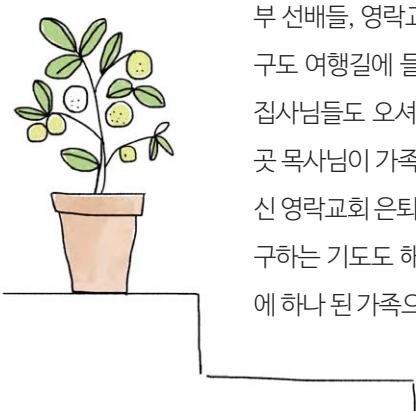
크리스천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 기도를 배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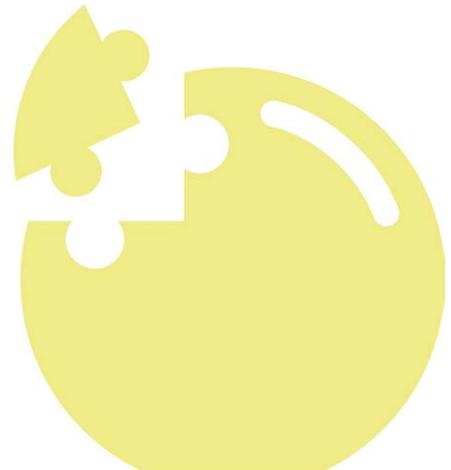
저는 영락교회 키즈입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부터 모두 영락교회에 다니셔서 제게는 교회에 나오는 일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를 거쳐 청년부까지 주일이면 교회에 갑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평범한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는 중에 직장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일을 찾았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공연 기획이었는데, 2년 만에 새로 사람을 뽑는 곳들이 많았어도 공연 자체보다는 팬덤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류에서는 통과되는데, 면접에서는 안 되는 일을 여러 번 겪으며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공허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마침 아는 분의 공간이 비어있어 강릉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제 일을 하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문화 기획, 공연 기획도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혼자(고양이 둘이랑) 살게 됐지만, 금요일에 엄마가 오시면 함께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예배드리고 청년부 친구들, 선후배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 나누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언제든 교회에 갈 수 있을 때는 예배에 열심이 없었지만, 혼자 있으며 시간을 아껴 말씀 듣고 기도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준비 중에 찾아와주신 청년부 선배들, 영락교회 가족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사진 왼쪽 두번째가 필자) 청년부 친구도 여행길에 들려주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엄마가 섬기는 부서의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도 오셔서 기도해주셨습니다. 건너 건너 알게 된 이곳 목사님이 가족들과 방문해주셨고 얼마 전에는 우연히 들르신 영락교회 은퇴권사님이 제가 이곳에 있게 된 의미를 주님께 구하는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 하나 된 가족으로 연결됨에 늘 감사드립니다. **만남**

박한결 성도_청년부 광야소리





Z세대 사역, 1:5에서 5:1로

교사 1인이 학생 다섯 양육엔 한계
목사·교사·부모 등 5명이 학생 1명 돌볼 때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기도한 적이 몇 번인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은 적이 몇 번인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신앙에 대하여 대화한 적이 몇 번인가요?”

미국 남침례신학교 티모시 폴 존스(Timothy Paul Jones·기독교교육과) 교수가 ‘자녀 신앙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동의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던진 질문들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처참했다. 대부분 가정에서 위와 같은 일들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¹ 머리로는 자녀의 신앙 형성에 부모로서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동의하면서도 실제 각자의 가정 안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구별된 신앙인의 삶이 보이지 않고 있었다.



신형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

교회와 가정이 ‘친절하고 매력적인 신앙공동체’ 제공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가 지적하듯, 이런 현상은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자녀의 신앙 양육 책임을 교회에 일임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자신의 영적 책임을, 자녀를 교회에 안전히 데려다주는 영적 배달 서비스 정도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²

미국 풀러신학교 청소년사역연구소 소장인 카라 파월(Kara Powell) 교수는 오늘날 고등학교를 마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현실을 보면서 이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은혜의 깊이가 결핍된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을 향한 교회와 가정의 신앙 양육 철학과 접근이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파월 교수는 150개 교회, 500명의 청소년과 청년들, 50개 기독 가정을 대상으로 7년 넘게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가 청소년에서 청년기로 인생주기를 전환하는 과정 중에 세상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도전과 응답이 연구 대상이었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다음세대 신앙 형성과 인생주기 전환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바로 가정과 부모라는 점이다. 신앙은 매일의 삶을 통해 의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재발견했다.

우리 자녀들은 인생 주마다 ‘나는 누구인가?’(정체성), ‘나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야 하나?’(소속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소명/비전)에 세

교회와 가정은 신앙에 관한 의심과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야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성장한다. 파월 교수는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인생 주기야말로 강력한 복음을 다시 주목하고 진리 앞에 마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다. 위와 같은 현장적 질문에 대한 교육목회 연구를 통해 찾아낸 청소년 사역 원리가 “5대 1 양육” 원리이다.

파월 교수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양육자 1명이 학생 5명을 교육하는 1대 5 양육 패러다임을 실천해왔지만, 이제는 양육자 5명이 학생 1명을 교육하는 5대 1 양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여 다음세대를 함께 양육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주일학교 교사 1명 뿐 아니라 같은 사명과 비전을 품은 담임목회자, 교구목회자, 교육교역자, 부모 등 4명이 더해진다. 이렇게 해서 5명이 1명의 다음세대를 함께 양육하여 이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돋는 신앙 양육의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청소년 사역의 원리는 ‘우선적 교사로서의 부모’ 세우기와 ‘신앙적 질문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제공이다. 다음세대 신앙 양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 조사들을 통해 공통으로 확인된 것은 다음세대 신앙 전수에 가장 우선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부모라는 점이다. 청소년기를 포함하여 다음세

대의 신앙을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믿음의 부모를 신앙교사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들이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음의 부모로 서도록 도와야 한다.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신앙에 관한 의심과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의심과 질문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도리어 더 깊은 믿음을 갖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 파월 교수는,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자녀세대가 자기 삶에서 마주하는 신앙적 의심과 질문 앞에 답을 먼저 주기보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진리를 찾아가며 토론하고 안내받아 결국 자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자녀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신앙공동체’를 제공해야 함을 확인한다.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청소년, Z세대를 복음으로 길러내는 길은 무엇일까. 교회와 가정이 복음의 본질을 듣고 경험하는 신앙공동체가 될 때, 영락교회 청소년들은 세상에서는 들려줄 수 없는 진정한 자아정체성과 안전한 소속감, 그리고 견고한 소명과 사명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여 기독 청소년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만남**

※ 이 글은 필자의 저서 『가정예배 건축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중 들어가는 말과 1장, 논문 「오늘의 기독교교육학자들: 카라 파월」(한국기독공보)의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한 것임.

1 Timothy Paul Jones, Family Ministry Field Guide (Indianapolis: Wesleyan Publishing House, 2011), 28

2 Voddie Baucham Jr., Family Driven Faith: Doing What It Takes to Raise Sons and Daughters Who Walk with God (Wheaton: Crossway, 2007), 9; Jones, Family Ministry Field Guide, 28.

믿음의 부모가 자녀 신앙방황 막는다

- 중·고등부 연합 청소년 부모학교, 청소년 부모기도회



부모가 신앙과 기도, 방향을 놓칠 때 아이들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안내를 따라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오기 힘들 정도로 길을 헤매게 됩니다. 다음세대의 믿음과 영육간의 성장을 위해 교회 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이자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학’부모 이전에 크리스천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교회는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교육부 산하 중·고등부 연합, 아동부 부모학교를 열었습니다. 중·고등부연합 청소년 부모학교는 5주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모기도회는 올 한해 동안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드림홀에서 열립니다. 아동부 부모학교는 2학기에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학부모님이 참여하기 기대하며, 첫 ‘학교-기도회’ 진행 내용을 전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 다니던 청소년이 대학에 가서도 교회에 나올 확률은 3% 정도라고 합니다. 통계대로라면, 현재 중·고등부 출석 인원 460여 명 중에 14명 정도만 교회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청소년일 때는 이 통계가 그렇게 와 닳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학에 간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모가 “우리 아이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했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힘쓰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

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신앙을 더 굳게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만 뒤쳐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일 학원 특강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보면 기쁨과 감사도 넘치지만, 마음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부모님 반대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학원 때문에 수련회에 못 보낸다는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편으로는 이해도 있지만 아이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며 깨닫게 된 것은, 부모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어야 자녀들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호 목사
고등부



청소년 부모학교 ‘나는 크리스천 부모’입니다.

우리는 이번 청소년부모학교와 청소년부모기도회를 열며 학부모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학(學)’부모이기 이전에 크리스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업 성적 이전에 신앙이며, 성공 이전에 신앙의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뇌의 급격한 발달과 2차 성장으로 인한 사춘기를 경험하고, 관계와 입시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부모들도 경험 없이 청소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을 하는 자녀들과 계속되는 다툼이 일어나고, 입시 앞에서 성경적 가르침보다 세상적 가치관을 먼저 가르치기도 합니다. 기도보다는 정보를, 신앙보다는 성적을, 예배보다는 학원을 중요시 여기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일까요? 정보와 성적, 학원을 택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멀리서 보면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친 삶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삶은 중심이 비어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 모든 것은 아이들만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올바른 신앙교육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5주간의 청소년 부모학

교는 ‘나는 크리스천 부모’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크리스천 부모다운 양육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주는 영락교회 교육전담 방덕종 목사를 통해 ‘크리스천 부모’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리는 방법에 대해, 2주차에는 김성중 교수(장신대)를 통해 ‘소통하는 부모’라는 주제로, 발달에 따른 청소년의 특징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차길영 대표(수학 싸부&세븐에듀)를 통해 ‘기도하는 부모’로 살아가는 방법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법,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주에는 김효숙 교수(장신대)를 통해 ‘디지털 세대와 부모’라는 주제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디지털 문화를 이해하며 선용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다섯 째 주에는 도현명 대표(임팩트스퀘어)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진로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주간 강의를 들으며, 조별 나눔과 훈련을 통해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적용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별 나눔을 통해서 다른 가정의 양육에 대



한 어려움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부모 기도회

자녀는 무릎으로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 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드림홀에서 열리는 청소년 부모기도회는 영락의 청소년 부모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자녀뿐 아니라, 자녀들이 만나고 함께하는 다른 친구들과 영락의 다음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기도 후에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부모님들은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기도 후에 있는 소그룹 나눔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정의 아이들도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를 들으며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신 부모님께서, 소망을 발견했다고 웃으며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영락의 모든 청소년 부모들이 기도를 통해 소망을 찾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 하길 기대합니다. 더 많은 영락의 청소년 부모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무릎으로 자녀를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합니다” – 아프리카 속담 중에서**

영락교회 중·고등부가 우리 자녀를 함께 키우는 하나의 거룩한 마을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영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부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 교육과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부모들이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영락의 중·고등부, 크리스천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만남**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 아동부 부모세움학교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중요한 사명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 첫 아동부 부모세움학교를 마쳤습니다.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 개강해 4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6주간 진행했습니다. 10시 30분 찬양으로 시작하여 70분 동안 주제별 강의를 듣고, 10분간 질의응답, 이어서 20분 동안 소그룹 나눔을 하고,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세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동부는 이번 부모세움학교를 통해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비슷한 만큼, 부모들의 고민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소그룹 나눔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믿음의 소그룹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

1주차는 ‘신앙으로 양육하기’ 주제로 영락교회 교육전담이신 방덕종 목사님께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기억하는 시간”을 강의했습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세계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며, 양육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주현 목사
소년부

2주차는 ‘하나님의 성품과 부모’라는 주제로 김도훈 목사님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 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비유를 통해 부모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기억했습니다. 평범한 삶에 감사하는 부모가 되고, 감사하는 자녀로 길러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주차는 ‘자녀의 신앙질문 관련 대처법’에 대해 제가 강의했습니다.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알고 싶어집니다. 신앙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알고 싶어지고,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그 대상에 대해 더 궁금해집니다. 또한 어린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게 뭐야’, ‘왜?’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될 때 호기심,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왜?’라는 질문을 찾아 조직신학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신학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영어로는 Systematic Theology 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에 관련된 모든 주제의 문제 해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주차는 ‘크里斯천 가정의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 홍장빈 목사님(패밀리타임 네트워크 대표)이 강의했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부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5주차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성공적 자녀교육’에 대해 홍만우 목사님(영락중학교 교목)이 “어떻게 하면 자녀교육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교육을 성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인도했습니다. 6주차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성교육’을 주제로 김지연 약사(에이랩 아카데미 선교회 대표)가 강의했습니다. 성경적인 성 가치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에 대해서 건강하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만날**

자녀의 신앙관련 질문 대처법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를 길러낸다

최근 큰 이슈가 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셨나요? 영상이 충격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똑똑한 젊은 청년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면 사고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자라기 때문에, 성숙해가기 때문에 질문들도 많이 생기겠지요. 저는 아동부 모든 가족이 ‘이해하는 신앙인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고하는 부모가 되어 사고하는 자녀로 길러야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가 어떤 질문을 할지 먼저 고민해보고,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대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질문할 때, 부모는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덜 당황하도록 미리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신앙에 관련된 질문을 시작했다면 질문에 대해 바로 대답하지 말고 한 번 더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신앙질문 대처법 5 가지

- 1. 경청하기** 질문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질문에 문제제기를 하기보다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2. 대화하기**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질문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 오이코스, 큐티, 나눔, 생각하는 훈련 등)
- 3. 사고하기** 계속해서 공부하고 사고해야 합니다.
- 4. 도움받기** 잘 모를 때에는 전문가(교역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 5. 기도하기** 기도해야 합니다.



2023년도 청년부 선교비전을 5월 26일(금)과 28일(주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이번 선교비전 주제는 ‘부르심: 누가 복음을 외쳐!’이며, 주제 말씀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37)입니다. 본당에서 금요기도회(26일)와 주일 찬양예배(28일)에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담임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누가복음 10:25~37) 말씀을 토대로, 이번 선교비전 추진 목적은 ‘누가’(Who)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누가’(Who) 이웃의 우리인가를 묵상하며 국내외 이웃에게 ‘복음’을 외쳐 전합니다. 청년부 부스에서 판매하는 맛있는 음료와 간식거리 판매 수익은 응원 롤링 페이퍼와 함께 전액 청년부 7개국(네팔, 태국, 러시아, 몽골,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K국, D국)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전달합니다.

제78대 청년부 회장단 | 나광호 회장, 김윤아 부회장, 이바다 총무, 이성경 부총무, 이성원 선교부장, 김예림 선교차장, 이도형 회계, 강병호 부회계, 김재식 교육부장, 허주영 서기, 정희문 부서기, 조경배 새가족부장, 김은영 새가족차장

주요 행사

- 5월 26일(금) : 바자회(청년부 카페부스, 10~17시) 및 본당 금요기도회
 - 5월 28일(주일) : 베다니광장 활동(9~16시) 및 찬양예배 청년부 특송
1. 만나 외침 of 청년부 : 음료 및 간식 판매로 해외 선교 후원금 모금
 2. 복음 외침 by 선교지 : 청년부 국내 하기선교 답사 및 활동 사진, 청년부 후원 선교사님들 최근 사역 사진 전시
 3. 응원 외침 for 선교사 : 청년부 후원 7개국 11명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롤링페이퍼로 응원과 격려의 외침 전달



-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사용하셨던 흔적을 많은 분과 함께 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발걸음에도 기도로 동참해주시길 소망합니다.
- 물을 포도주로 바꿨고 적은 빵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청년부 선교비전을 통해서 국내외 선교를 위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 선교비전을 준비하며 처음 느낀 감정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계획하고 협력으로 보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선교비전을 통해 후원금 모금 및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외 선교지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 작년 선교비전부터 하기선교까지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올해에도 모든 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 선교비전뿐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려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함께 모여서 힘쓰며 완성해가는 선교 비전을 통해 모든 성도님과 어우르고 즐겁고 뜻깊은 시간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 우리 청년들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 번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 선교비전 준비하면서 보람과 감사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셔서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 코로나로 몇 년간 선교활동에 제약이 있어 아쉬웠지만, 엔데믹으로 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와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보기 를 원합니다.
- 경험도 지식도 부족하지만, 모두가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서로 더 이해하고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소한 노력이 세상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선교비전을 통해 더 큰 영적 성장과 더 풍부한 선교활동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전파되길 바랍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작은 물줄기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나만 안 되는 연애 사랑은 이다

- 청년부 연애특강



青春(푸른 청, 봄 춘) ‘청춘’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봅니다.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 중에서도 봄날과 같은 푸릇푸릇함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더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청춘의 때에는 ‘진로’와 ‘사랑’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을 사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가정의 모습이 많이 퇴색된 최근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연애와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디자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의 그 중간에서 있는 1980년대, 1990년대에 태어난 2030 세대들은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때때로 길을 잊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기분을 느낍니다. 유년 시절에는 부모님 세대를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때가 되면 어른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어른이 되고, 사회에서 말하는 결혼 적령기의 나이가 되니, 누군가를 만

나고 사랑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내고, 혼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키워내신 부모님 세대에 대해 새삼 존경스러운 마음이 되살아나는 2023년의 봄입니다.

지난 3월 19일 청년부에서는 담당 목사이신 오병훈 목사님을 강사로 ‘나만 안되는 연애(부제:나만 설렜냐?)’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연애 특강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교회 앞 <별다방>에서 목사님의 연애 스토리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언제나 멋있고 유쾌한 모습인 목사님도 청년이던 시절에 때로는 사랑 앞에서 지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셨더라고요! 한 편의 드라마를 시청한 듯 재미있고 공감 가득한 이 스토리를 우리 청년부원들과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애 특강은 최초의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청년들이 가지고 온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남자 친구가 바람피웠지만, 아직도 저는 그 사람이 좋은데 용서해



야 할까요?’,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났지만, 신앙이 없는 이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 어쩌면 좋을까요?’, ‘신혼집 마련 등 결혼자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등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온 질문과 오병훈 목사님의 진심 어린 답변으로 함께 웃기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연애 특강의 마지막 질문은 ‘사랑은 OOO이다.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신다면?’이라는 질문으로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특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은 고마움이다.’ 목사님은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돋는 손길과 희생으로 함께해오신 사모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셨는데, 그 마음이 현장에 있던 모든 청년 모두에게 짠한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사랑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의 지인 중 한 사람은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힘이 있기에, 사랑은 온유함의 특성을 가지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말로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면서도 사랑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내 가족, 친구, 동료, 직장 사람들, 이웃 등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한 달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만날**



여태공 성도
청년부 광야소리



N e p a l

청년부파송선교

‘한달 계획’이 십년으로…네팔로 이끈 아버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네팔에 왜 갔나요?”, “네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다. 네팔에 왜 갔는지 대답하기 위해서는 2012년으로 거슬러 가야 한다.

아버지 선교 도우려 가벼운 맘으로 왔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에 잠을 깼다. 네팔이라는 나라에 온 지 열흘째다. 두 주 전까지만 해도 주일 이면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하고 새삼 되새겨 본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8년을 계시다가, 2010년부터 중국 공안의 압박이 심해져서 결국 네팔로 선교지를 옮긴 지 2년이 됐다. 그 동안 아버지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백여 명이 모이는 교회와 네팔 각지에서 온 열두 명이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 등에서 열심히 사역 중이셨다. 하지만 금식기도를 하시다가 보호식 실패로 건강을 많이 해치셔서 급작스럽게 내가 네팔에 오게 됐다. 내가 네팔에 도착하고 나흘째 되는 날, 아버지는 한국으로 귀국하셨다. 그 이후 나는 네팔리 신학생 열두 명과 함께 먹고 자며 예배하면서 지내는 중이다.

오늘 신학생들에게 강의하시는 옴 따망 목사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몰랐던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지낸 목사님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죽을 날만 기다리던 중 교회에 갔다가 병 치료를 받으면서, 온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병이 나아 고향에 돌아갔으나 고향마을에서는 “예수를 버리든가, 아니면 이 마을을 떠나라” 하며 협박했고 결국 옴 따망 목사님 가정은 고향의 집과 땅을 다 버리고 도시로 떠났다. 도시민으로 살면서도 고향 마을을 사랑하는 옴 따망 목사님은 인도까지 유학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와 고향마을 사람들을 전도했다.

성전 없어 풀밭 끼약볕 예배

옴 따망 목사님의 헌신 덕분에 결국 고향 마을에는 백여 명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겼지만, 가난한 마을이다 보니 성도만 있고 교회가 없었다. 교회 건물이 없다 보니 예배를 드리다가 비가 내리면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해가 너무 강하게 쪄면 나이드신 분들은 쓰러지기도 한다고 하면서 내일 오시는 한국 목사님들께 교회 건축을 부탁한다고 하셨다. 햇볕 내리쬐는 풀밭에서 예배드리는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다. 강의하러 오셨던 한국 목사님도 마음 아파하면서 당회에서 허락을 구해보겠다고 하고 한국으로 가셨다.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몸을 추스르고 네팔에 돌아오시면, 나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한 달짜리 계획으로 네팔에 왔었다. 한 달의 체류를 슬슬 마무리 지으려는 그때, “당회의 허락을 얻었다면서 당장이라도 교회 건축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낭보를 전해오셨다.

교회 건축의 시작을 정하 씨가 했으니 마무리까지 잘 부탁한다고 했다. 결국 교회 건축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지고 한 달 체류를 일 년 체류로 바꿨다.

십여 년의 선교지 생활로 건강을 많이 해친 부모님은 일 년의 안식년을 갖기로 했다.

목사님의 옛 집터 위에 목사님께서 첫 삽을 뜨셨다. 교인들은 두 시간의 산길을 걸으며 시멘트를 날랐다. 교회 벽을 쌓는 기술자들은 우리 교회라며 돈을 받지 않고 일했다.

교회건축 ‘거룩한 부담’에 체류 연장

한 달의 계획이 일 년이 되고 다시 십 년이 지났다. 나는 2014년부터 영락교회 청년부 파송 선교사로, 영락교회 청년부의 기도와 후원 아래 사역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네팔인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와서 일하다가 다시 네팔에 돌아간다.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하여,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다. 나를 네팔로 이끈 아버지는 내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는 것도 잠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받은 소명을 다하시고 열흘 만에 소천하셨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는 다시 네팔로 들어간다. **만남**



이정하 선교사
네팔 청년부파송

※ 선교지 특성상 얼굴 사진을 실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Vietnam

베트남어예배

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외국인들

영락 외국어예배 선교센터 개원 캠퍼스와 교회 완충지대 역할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고 한국에 유학 오는 많은 학생들의 어머님이 당부하십니다. “한국에 가면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럼에도 영락교회 선교부 외국어 예배에는 매주 60~70명의 유학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베트남어예배를 섬기는 규옥투안 전도사입니다. 2022년 1월 2일 베트남 사람을 위해 베트남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어예배 외에도 러시아, 중국, 몽골, 네팔, 미얀마 언어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변에 외국인이 있으면 인도해주세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태어난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제 주변에도 당연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난치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



규옥투안 전도사
영락교회 베트남예배

며 치료를 받아봐도 효과가 없었고 결국 병원에서는 치료를 포기했고 어머니는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절망 속에 죽음을 기다리던 저희 어머니와 가족은 하루 하루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분 말로는 예수님은 훌륭하신 의사 이시고 어머니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예수님을 꼭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부탁드렸고 바로 그 주 주일에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가정교회이고 그곳에 그런 은밀한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예배를 드린 후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보고 “네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처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바로 누워계신 어머니 옆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 살 아계신 예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셀 수 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다음 날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후 예수님의 누구신지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 가족과 친척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신 분이 없었다면 우리 어머니 병은 물론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고 인생을 구하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 대부분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

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명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유학생 선교 프로그램이 평일과 주말에 운영될 <영락 외국어예배 선교센터>가 작년 한 해 동안 신촌 대학가에서 시범 운영을 끝내고 지난 4월 8일 개원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오픈했습니다. 이곳은 저와 같이 기독교가 아닌 나라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바로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종교적 이질감을 완화하도록 마련된 캠퍼스와 교회의 중간 완충 지대입니다. “한국에 가면 교회는 가지 말아라”하는 어머니를 둔 유학생들이 한글도 배우고, 스터디 카페로 이용하고, 유학생들 커뮤니티 모임도 하며, 고향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행사 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유학생을 전도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사역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또 계속해서 영락교회 외국어예배를 위해 더욱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선교부 주일 외국어예배

러시아어 예배	봉사관 501호	오후 12:30~2:30
몽골어 예배	봉사관 501호	오후 2:30~4:30
네팔어 예배	봉사관 501호	오전 11:00~12:30
중국어 예배	봉사관 304호	오후 1:00~3:00
베트남어 예배	봉사관 501호	오전 9:30~10:40
미얀마어 예배	봉사관 304호	오후 4:00~5:00

미션·바울…영락시어터 다시 문연다



영락문화공간이 다시 문을 엽니다. 50주년기념관 소강당 1층에서 매 주일 오후 2시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상영합니다. 코로나19로 문 닫은 지 3년여 만의 만남입니다. 영화 상영을 언제 시작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첫 번째로 선정한 영화는 <아름다운 비행>입니다. 몇 번을 상영했어도 그때마다 감동과 따뜻함을 잊을 수 없는 영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인도 영화로 <스텐리의 도시락>입니다. 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영화는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 <미션>입니다. 네 번째 영화는 <바울>입니다.

당분간 영락문화공간 영화 상영에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아직 환기 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인원 제한이 있으며, 2시 영화 상영 시작 후에는 입장하실 수 없음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락문화공간 5월 프로그램 안내

5/7 영화상영 : 아름다운 비행 (Fly Away Home,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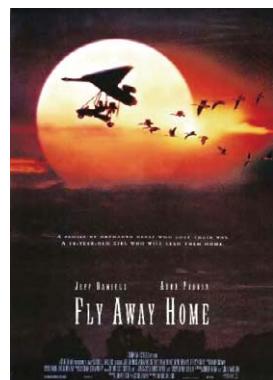
감독 : 캐롤 밸러드

주연 : 제프 다니엘스, 앤나 파킨, 다나 딜러니

상영시간 : 1시간 47분

등급 : 전체 관람가

엄마를 잃고 아빠와 시골에서 사는 에이미는 늪에서 발견한 미처 부화하지 못한 거위알을 소중히 보살펴 16마리의 귀여운 새끼 거위들이 태어난다. 에이미를 어미로 아는 거위들을 따뜻한 남쪽의 서식지로 데리고 가기 위해 에이미와 아빠는 거위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친다. 사람과 철새가 함께 하늘을 날 수 있을까.



5/14 영화상영 : 스탠리의 도시락 (Stanley's Tiffin Box, 2011)

감독 : 아몰 굽테

주연 : 파토르 A 굽테, 아몰 굽테, 디비아 더따

상영시간 : 1시간 30분

등급 : 전체 관람가

외모, 공부, 노래, 춤까지 못 하는 게 없는 학급의 일인자 스탠리. 빠지는 것 없는 완벽 소년 스탠리에게 단 하나의 약점이 있었다. 바로 점심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하는 것. 하지만 매일같이 도시락을 나눠주는 마음씨 착한 친구들 덕분에 스탠리의 학교 생활은 즐겁기만 하다. 그러던 어느 날, 식신 베르마 선생님이 스탠리 반 아이들의 풍족한 도시락을 약탈하기 시작한다.



5/21 영화상영 : 미션 (The Mission, 1986)

감독 : 룰랑 조페

주연 : 로버트 드 니로, 제레미 아이언스

상영시간 : 2시간 5분

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신앙의 본질을 묻는 영화. 남미 오지의 스펙터클과 배우들의 연기로 고전이 되었다. 18세기, 남미의 오지로 선교활동을 떠난 가브리엘 신부 일행은 폭포 절벽 꼭대기에 사는 원주민 과라니족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이들과 교감한다. 노예상 멘도자는 결투 끝에 동생을 죽인 죄와 예전에 과라니족을 사냥하여 노예로 팔았던 죄를 참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브리엘 신부를 따른다. 과라니족 마을이 포르투갈 영토로 편입되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무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멘도자와 비폭력 원칙을 지키려는 가브리엘 신부가 맞서게 된다.



5/28 영화상영 : 바울 (Paul, Apostle Of Christ, 2018)

감독 : 앤드류 하얏트

주연 : 제임스 폴크너(바울), 제임스 카비젤(누가)

상영시간 : 1시간 47분

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그리스도가 부활한지 약 30년 후인 AD 67년, 로마제국의 황제 '네로'는 자신의 광기로 일어난 대화재의 원인으로 신흥종교인 기독교에 책임을 돌린다. 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불태워지며 극심한 박해를 받는 크리스천들. 그들의 리더인 '바울'은 '네로'의 명령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사형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죽음의 문턱, 두려움 속에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바울의 일생과 그가 얻은 지혜를 사도행전으로 기록하여 전하고자 깊은 감옥 속으로 숨어드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봄날 영락교회 본당에서 산상기도회가 열렸다. 4월 26일(수)~28일(금) 열린 제63회 산상기도회는 그동안 여름철 수유리 기도원에서 열리던 산상기도회를 시기와 장소를 옮긴 것.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제로 사흘간 7회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 성도들이 참여하기 편하도록 교회에서 열린 이번 산상기도회는 오프라인 10,295명, 온라인 19,215명이 참여해 총 29,510명이 함께하였다.



기도하는 성도들

유기성 목사는 골로새서 말씀을 기반으로 7회에 걸쳐 ‘오직 예수의 신앙’,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가정’ 등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오후에는 열린 성경 통독에서는 사무엘상,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읽었다. 이번 산상기도회는 시기와 장소를 바꾼 것 외에도 매일 저녁 ‘어린이 산상기도회’를 진행했다는 점이 주목됐다. 교육부가 준비한 신체활동, 나눔과 미술활동에 참여한 어린이 215명은 ‘말씀 따라 걸어가요’ 주제로 귀한 시간을 누렸다.

어린이 산상기도회 미술활동,
선생님 따라 만드니 너무 재미 있어요

사무엘상,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통독



고사리 손모아 캡케이크 만들기



밥먹고 합시다! 성도들에게 배식봉사



청결하게! 환경시설부 화장실 청소 봉사

산상기도회
'최고의 한끼' 냉면



기도회 기간 중에는 총괄총무부, 환경시설부, 교통안내부, 생활부 봉사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도록 헌신했다. 또한 목양부는 아침, 점심, 저녁 7회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성도들은 집회와 성경 통독을 통해 몸과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7월에는 영락기도원에서 특별금요산상기도회가 3차에 걸쳐 열린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젊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멱살 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 목 부분을 잡아끄는 것을 의미하는 멱살과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캐리(carry)의 합성어로 ‘한 명이 주도적으로 패배팀을 승리로 이끈 경우’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대충 ‘00의 멱살을 잡고 좋은 쪽으로 끌고갔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저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셨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 8개월이 채 안된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뇌에는 수술로 제거가 불가능한 혹이 다섯 개 발견되었고 당시 제가 태어나자마자 입원했던 서울대학병원 담당 주치의께서는 제가 살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다며 부모님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우 살아난다고 해도 높은 확률로 지체장애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습니다.

낙담한 부모님께 당시 명성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저희 이모부께서 찾아오셨고 미국에서 저와 비슷한 상태의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제가 건강한 아이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병원에 단 3대밖에 없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 저의 일주일치 입원비가 우리 아버지의 석달치 월급이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제가 겨우 병원을 퇴원할 수 있는 몸무게가 되자 어머니는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 저를 품에 안고 곧바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주시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으로 길러내겠다며 매일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박소망 전도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선교부
새가족부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적의 아기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보시고 며칠 사이에 뇌의 혹이 전부 사라지고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능들이 정상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후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당시 저를 담당하셨던 소

아과 주치의께서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고 하시며 이 아
이가 건강하게 크면 자신에게 한번 데려와 달라는 이야
기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적의 아이’로 불렸습니다. 저는 당
연히 목회자가 되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청소년기를 지나는 저에게 부담
으로 다가왔고, 부모님이 드린 서원은 저에게 원망이 되
었습니다. 저의 꿈을 짓밟는 것 같다는 생각에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가족들이 나를 ‘목사’로 키우기 위한 고도의 전
략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을 의심했고 교회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음악,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저의 유흥을 위해 사용했고, 불량한 친구들과 다니며 부
모님께 상처를 드리기도 하며 저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
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방황
하는 친구들과 어울림에도 술, 담배를 하지 않도록 보호
하셨고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부모님의 지도와 끊임없는
관심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저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음악적 재능을 발산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진 않았
지만 주님은 저와 제 주변인들을 통해 저를 교회라는 건
강한 울타리와 문화 속에서 배우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어느덧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그 30년전 기적의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
는데 법적으로 의료기록 보관 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태어난 1991년도의 기록은 이제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서울대학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수기로 작성된 의료기록이 있으니 와서 복
사해서 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
고 그 의료기록을 뽑아왔습니다. 당시 제가 청년으로 있
던 교회에는 친하게 지내던 의사선생님이 계셨고 그분께
의료기록을 가지고 가서 리뷰를 부탁했습니다.

한때 방황했지만…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저는 카페에 앉아서 의사선생님과 100페이지가 넘는 저
의 의료기록을 한 장 한 장 살펴보았고 제가 겪었던 기적
의 사건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30년 전 의료기록을 통해서 저에게 “그
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
습니다. 의료기록을 확인한 후 제가 자라왔던 그 모든 순간
간이 은혜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
며 생겼던 마음의 상처 또한 성장통의 과정이었다는 것
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하시는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아직도 그 뜻을 찾아가고 있
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함 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
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저와 함께 일하신다는 확
신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압니다. 그것
은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을 하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
리를 이 땅 가운데 숨 쉬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
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가 그 목적을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끝내 의의
길로 이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안남**

세상과 연결된 통로 영락어린이집 귀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요즈음 어디를 가나 아이들을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들리던 ‘까르르’ 웃음소리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학원에 가느라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어서 볼 수 없었고 근래에는 코로나로 인해 볼 수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 보도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어디를 가나 아이들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 많았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지 않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아이가 많다 보니, 많은 교회가 선교와 복지의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 교육, 놀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가 영유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재원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국가가 영·유아 보육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선교원 등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서 공적 자금도 투입되기 시

작했습니다. 또한, 교회도 이에 맞추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좋은 시설의 환경과 교육 내용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 기관보다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봄과 교육의 섬김을 시작한 선교원의 모태인 어린이집이기에 그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영락교회에도 세상의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인 여러 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영락어린이집은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영락보린원 내에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고 2006년에 리모델링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아이들뿐 아니라, 장애영·유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 등 다양한 환경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편견없이 어우러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 및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여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최선의 환경과 교육,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심껏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에도 뒤지지 않게 운영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는 우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인 시설 고유 운



공미경 원장
영락어린이집



영락어린이집의 봄·여름·가을·겨울

영에 대한 공모전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락어린이집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이 넘치는 어린이집에서 사계절을 보내며 아름다운 새싹을 피우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 아래 마음껏 뛰어놀고, 여름엔 넓직한 풀장에서 자유로이 헤엄치며, 가을이 되면 텃밭에 심은 열매를 추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겨울엔 새하얀 눈밭을 둥굴며 따뜻한 온정을 나눌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아이들이 영락의 뜰에서 ‘까르르’ 웃으며 세상에 선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시작된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영락어린이집’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도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상과 연결된 통로인 어린이집 사역을 위해 우리 영락에 속한 어린이집뿐 아니라 예수님의 돌봄과 사랑으로 시작한 모든 교회에 속한 각 어린이집이 복음과 섬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만날**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2023년 상담부 가정사역인 어머니학교 <마더와이즈> 3기 모임에 25명이 참여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경 말씀, 중보기도, 멘토링으로 구성된 마더와이즈 1, 2기의 「지혜」에 이어 3기 「회복을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제로 6주간(3월 18일~4월 22일)」 매주 토요일에 진행했습니다.

마더와이즈 3기 「회복」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때 우리의 존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진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 신부 된 우리가 신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누림과 나눔 가운데



곽선미 권사
상담부
어머니학교팀장

데 회복으로 가는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자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지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찬양하며 리뷰(지난주의 말씀 복습)하는 시간을 통해 말씀을 다지고 중보기도하며 나눔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예습하고 성경 인물 속에 드러난 여성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개 조로 나누어 리더의 인도하에 진행하는 소그룹 중보기도와 나눔의 시간은 자매들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1주에서 5주까지는 온라인 줌으로 만나왔으나 6주차에는 대면으로 전체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통한 만남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여성을 소망하며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노래는 ‘숨’…비워야 은혜 커져

- 스페인 세계합창대회 2위 헤리티지팀
베들레헴찬양대 솔리스트 박희영 성도

SBS 예능 프로그램 ‘싱포골드’ 첫 방송부터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종 TOP3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스페인 ‘2022 월드코랄컵’ 참가 티켓을 따냈던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24개국 36팀이 참가한 월드코랄컵에서 팝&재즈&가스펠 부문 2위를 차지하고 왕중왕전까지 진출하여 골드 등급을 수상했다. 올해로 창단 18년을 맞는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를 이끄는 베들레헴찬양대 솔리스트 박희영 성도(종로·성북교구)로부터 그의 ‘싱 포 지저스(SING FOR JESUS)’를 들어본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부족한 저희가 오늘까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체를 고민하던 헤리티지는 2022년 초 ‘싱포골드’ 참가자 모집 소식을 듣는다.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 4월에 준비를 시작하고 안무를 포함해 7월 첫 번째 무대를 준비했다. 그



영락교회에서 유아세례 받고
찬양대 활동으로 가스펠 길 걸어
“말씀에서 음악적 영감 얻죠”



※ 헤리티지 (Heritage 믿음의 유산)

블랙 가스펠 합창단 헤리티지는 ‘나는 가수다’에서 임재범의 <여러분>, 무힌도전, 불후의 명곡, 가수 이문세, 이승환, 바비킴, 미국 흑인가수 커크 플랭클린과도 협연했다.



첫 무대는 박진영의 ‘Swing Baby’를 개사한 무대로,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에 MC석에서는 최초 전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트리플 골드로 2라운드에 진출했다. 1차 붙었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 ‘욕심 없이 자유롭게’ 무대에 섰다. 그런데 다시 MC 전원의 기립박수와 시청자의 시선을 강탈한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역대급 무대는 4.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1분’을 독점했다. 그뿐인가? 스페인행 마지막 경연을 앞두고, 악기나 반주 없이 목소리만으로 펼치는 아카펠라 경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장르였기 때문에 더욱 뜻깊었던단다.

블랙 가스펠을 확산시킨 주인공이세요. 노래를 전공하셨나요?

“아! 저요? 게임학과 출신이에요. 앞서가는 분야라 진학했는데, 영 취미가 없어서 재수하여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였죠. 게임 하나라도 개발했거나 지식재산권 관련이나 변리사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제 길이 아닌 거 같았어요.”

의외입니다. 음악적 기반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긴 했는데 교회 찬양대에 합류하면서 음악에 빠졌죠. 중등부 시절에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주일 새벽 일찍 교회에 가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일상적으로 만났던 분들이 1부 찬양대 분들이었던 게 신기하네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호산나찬양대를 거쳐 현재 베들레헴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01년 찬양팀 <믿음의 유산>에 합류하여 음악의 길을 걸었다. 흑인 음악인 블랙 가스펠을 했지만 당시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헤리티지 활동 초기에는 흑인 가스펠 가수들의 공연을 보며 스스로 공부하고 익혔다.

“2006년 세상에 나가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헤리티지>로 재탄생해 앨범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방송활동을 시작했어요. 「헤리티지 1집」은 <제4회 한국대중음악상 R&B, Soul> 노래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헤리티지>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셔서요. 그 자체 가 간증이죠”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재즈와 클래식 성악입니다. 제가 보컬 트레이닝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숨’에 대한 거예요. 호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래하려면 호흡이 제일 중요한데, 숨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역할이랄까. 숨을 잘 비워야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나님께 힘껏 내어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강렬하게 드리면 큰 호소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죠. 신앙도 내려놓음이 있어야 잔이 채워지는 것처럼 노래도 숨을 잘 비워야 충분히 쉴 수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음악적인 스킬입니다.”

그는 음악적 영감을 ‘말씀’에서 얻는다고 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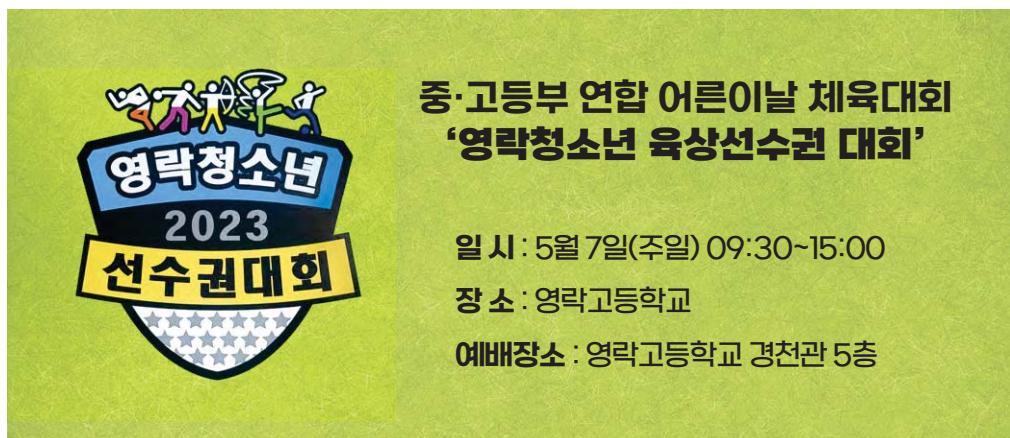
싱 포 지저스(Sing for Jesus)

“저는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랬듯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경험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삶은 도전이라고 생각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되 포기하지 않는 삶, 그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처럼 익숙한 찬양을 불렀다.

♪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413장) 한남

취재 인 미 기자



제게 주신 세 번의 연단 주님 온전히 알게 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2월 새가족이 된 5교구 김이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를 새가족으로 환영해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저에게는,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당연하게 일요일은 주일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교회와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같은 뜨거운 믿음은 아니지만, 잔잔한 파도처럼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셔서, 신앙의 큰 변화 없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큰 변화는 없는 삶이었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큰 변화가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무렵, 아버지는 서울에서 20년을 넘게 하시던 교직 생활을 그만두시고 연고도 없던 수원 조그만 개척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고, 마냥 장난꾸러기였던 저는 졸지에 목사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로서 타의 모범을 보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기도와 가르침을 받고, 목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학교 친구 전도 및 봉사로 최선을 다해 섰겠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부모님의 혼신과 믿음을 직접 보았기에, 더욱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더 큰 삶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미국 삶

의 비전을 본 아버지는, 제가 고1, 누나가 고3으로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던 시기에, 한국에서의 삶과 목회를 정리하고 미국 이민을 결정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외국인과 영어로 한마디도 나누어 본 적 없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던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버지의 목회는 계속되었지만, 목회자로서 한번도 온전히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으셨고,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발 벗고 나셨으며, 선교와 목회에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생계유지를 위해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건물 청소, 식당 서빙 등 부업으로 저와 누나를 먹여 살리셨으며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고등학교 시절 방과 후 저녁 늦게까지 부모님을 도와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힘든 마음 대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주어진 일에 힘쓰고, 맙은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 친양대 대원으로 섬기며 교회 봉사에 힘썼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변화는 목회자 자녀가 된 초등학교 시절도 아니고, 영어 한마디 못하고 바로 미국 생활에 적응해야 했던 고등학교 시절도 아닌, 한국 군대를 막 제대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로스쿨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막대한 공부 양과 낯선 환경은 차리리 이등병 생활이 더 나을 정도라고 생각하게 했고,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상으로 약의 도움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 시간들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저의 삶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주님 결을 멀리 떠났던 삶

은 아니었지만, 나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 덕분인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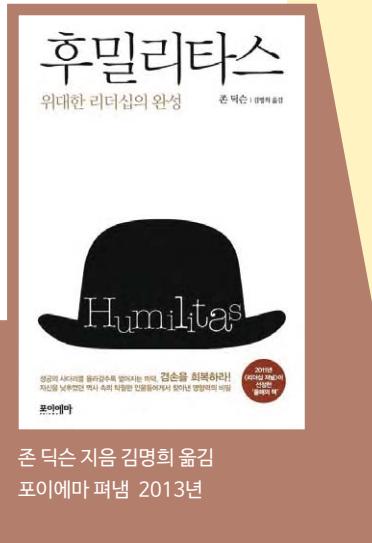
로스쿨 졸업 후 미국 뉴욕에서 경력을 쌓은 후 2022년 작년 여름 한국에 귀국하여, 지금은 6년 차 미국 변호사로서, 미국 로펌 한국 지사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수 합병 및 회사법 관련 분야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정의의 사도 같은 일을 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한국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 하던 시절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 한인교회에서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2020년 8월 영락교회 본당이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 김운성 위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다짐처럼 작년 귀국하여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해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매주 은혜로운 말씀의 양식을 주시는 김운성 위임 목사님, 그리고 예배에 올 때마다 반겨 주시는 장인 장모님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나의나 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날**



김이수 성도
관악·동작·금천교구

후밀리타스: 위대한 리더십의 완성



오늘날 겸손의 리더십은 종교뿐 아니라 비즈니스, 스포츠 및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인식되게 된 기원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리더의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러한 호기심이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역사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 존 딕슨은 이 주제를 역사적 고증을 통해 살피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겸손, humility, humble’이란 단어는 원래 ‘비루한, 비천한, 번번찮은, 초라한’과 같이 부정적 의미만 있는 단어로 오늘날의 ‘덕목’으로서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 단어가 오늘날의 긍정적 개념을 가지게 된 이유를 저자는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여러 고대 사회가 그려했듯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스라엘 또한 ‘명예-수치(honour-shame)’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장 비천한 죽음을 맞이했기에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해석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결론 내렸고, 또 다른 부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위대함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사고방식을 택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두 번째 사고방식으로 십자가 사건을 다시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덕목으로서의 ‘겸손’ 개념이 시작된 것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책의 후반부는 ‘겸손을 훈련하는 방법’인 듯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성경적 겸손을 훈련하고자 하는 신앙인에게 좋은 지침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이 책은 ‘위대한 리더십의 완성’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리더십을 다룬 책이며, 역사적 연구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 인문사회학 책으로 비기독교인에게도 추천하기 좋은 책입니다. **만남**



방덕종 목사
교육전담, 대학부
교회교육원
교사교육부

순종의 비유(Allegory of Obedience)

이탈리아 중부, 아시시(Assisi)에 위치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는 중세 거장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 1266~1337)와 그의 스승 치마부에(Cimabue, 1240~1302)가 그린 프란치스코의 생애 연작 등 많은 프레스코화가 벽면과 천장을 가득 채워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조토는 르네상스의 선구자로서, 피렌체 학파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측면과 후면을 묘사함으로써 공간감 없는 정면 위주의 구성에서 벗어나, 입체감을 더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또한 배경에 구체적인 풍경과 건물들을 그려 넣어 ‘배경’이라는 요소를 회화에 최초로 도입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조토는 이러한 구체적 사실성과 함께 인물의 감정과 역동적인 동작을 표현하며, 모든 인물에 개성과 감정을 불어넣은 첫 번째 화가로, 여러 부분에서 최초를 도입한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구원에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의 길은 쉽지 않지만, 우리 역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영적 지도자가 정한 길을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상징하는 수도자의 모습과 함께 두 가지의 덕인 ‘거룩한 분별’과 ‘거룩한 겸손’을 표현했고, 이에 반해 ‘교만’을 상징하는 반인반수가 다른 천사에게 저지당하는 모습을 표현하여 순종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위 꼭대기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명예를 두른 모습을 표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두 손에 순종하며 인도되고 있는 거룩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남**



1490년에서 1550년 사이에 제작된
조토의 사후 초상화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2023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4월 3일(월)부터 8일(토)까지 일주일간 본당에서 열렸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기도회 기간 동안 ‘고난을 일상에서(누가복음 8:1~3)’, ‘고난을 통해 묶여진 가족(누가복음 8:19~21)’, ‘누가 영광을 보는가? (누가복음

9:18~29)’,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누가복음 9:51~56)’, ‘너도 가서 이와 같이하라(누가복음 10:25~37)’, ‘무덤에 동침함(누가복음 12:13~21)’ 등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번 기도회에서 김 목사는 “하나님의 고난은 잠시의 십자가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이어져왔고, 지금도 고난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 속에서 작은 고난을 함께 감당함’으로, 골고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락의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며 고난주간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중·고등부연합 성금요일예배 – 십자가예식…‘거룩한 삶’ 결단

지난 4월 7일(금) 고등부(부장 서상현 장로)와 중등부(부장 차남수 장로)는 50주년기념관 4층(중등부예배실)에서 <성금요일예배>와 <십자가예식>을 진행했다. 예배의 말씀을 전한 이영호 목사는 ‘이사야 53:4~6’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온몸이 찢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고난의 십자가에서 괴롭고 외로운 예수님, 우리도 그분 곁을 지키며 고난에 참여하자”, “슬픔의 십자가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부활의 기쁨과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살아가자”라고 권면했다. 이어서 ‘십자가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



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적어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사진 고등부

선교부, 직장인 성금요예배 음악극 <베드로의 고백> 공연

4월 7일(금) 직장인예배는 교회인근 직장인과 동료 및 지인을 초청하여 함께 드리는 특별한 예배로 드려졌다. 이날 기존 참석자 130명 외 100여 명이 더 참석하여 50주년기념관 드림홀을 가득 메웠다. 예배는 성금요일에 맞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영상 관람 후 직장인찬양대의 특송, 문화선교 음악극 <베드로의 고백> 공연,

황재영 목사의 말씀 순서로 진행되었다. 말씀은 문화선교에서 준비한 음악극의 베드로가 예수의 손을 잡는 순간의 장면으로 연출하여 메시지를 전했다. 공연한 음악극은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한 사건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후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을 통해 제



자의 삶과 또 세상의 도전 가운데 좌절하지만,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담아 주님을 묵상하며 은혜의 성금요일이 되었다.

제공 문화선교 사진 원종석 기자

제1남선교회, 군부대 방문…달걀·성경책 기증



부활절을 앞두고 선교부와 제1남선교회 주관하여 선교부, 남·녀선교회 자치단체 회장단, 기드온 임원이 참석하여 4월 4일 군부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경기도 파주의 제1보병사단 전진교회(군목 소령 이산호 목사)는

의 협안인 노후시설 보수 및 건축 관련 현장과 예정지를 돌아보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제공 이성우 안수집사(제1남선교회 총무)

부활절연합예배, 영락교회에서 열려…윤석열 대통령 참석



2023년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가 지난 4월 9일 72개 교단이 동참한 가운데 “부활 생명 회복과 부흥으로” 주제로 오후 4시 영락교회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정계 교계 주요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영락교회 7개 연합찬양대의 ‘alleluia’(지휘 박신화)가 웅장하게 울려 퍼진 가운데 장종현 목사(예장백석 총회장)가 ‘부활은 우리의 희망 이요.’(고린도전서 15:57)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다. 장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부활 신앙으로 성령충만하여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란다”라고 설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부 예배 후, 2부 ‘환영과 결단’ 순서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

러분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정부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를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특히 윤 대통령은 영락교회가 운영하는 대광초등학교를 졸업하셔서 저희로서는 또 다른 감회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부활절연합예배 현금은 전액 저출산 극복 사역에 사용된다.

취재 인미 기자 사진 국민일보, 대통령실 제공

아기 출생 축복해 드립니다

아기 출산 시 출생 소식을 알려주면 주보 출생란에 광고를 합니다.
출생신고서(교회양식-세대 교적, 출생신고서, 축복기도 신청서)
를 교구 교역자에게 제출하면 축하금을 드립니다. 단, 아기의 부모
중 한 명이 본교회 등록교인이어야 한다.

호산나찬양대, 2023 부활절 음악회 “거룩한 주 찬양, 호산나!”

부활주일인 지난 4월 9일 저녁, 우리 교회 부활절음악회가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4부 예배를 섭기고 있는 호산나찬양대와 오케스트라는 백유미 ‘Festive Mass (축제의 미사)’, 마리 맥도널드 (Mary McDonald) ‘What Love is this (어떤 사랑일까?)’ 등 2개의 합창 레퍼토리와 여성중창 무대 등을 선보였다,

특별히 이번 음악회는 찬양대의 과거와 현재, 미래 세대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소식적 호산나찬양대를 섬긴 장로·집사들의 남성 합창 ‘조이풀 시너즈 (Joyful Sinners)’, 우리 교회 미래 교회음악을 책임질 ‘영락 고등부 찬양대’도 연주자로 나서 축제의 향연을 펼쳤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우리 교회가 찬양을 잘해서 부임 내내 행복하다”, “예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을 마무리하게 됐다”라며 연주회를 격려했다.

이번 음악회 과정에서 다소 애로사항도 있었다. 리허설 전부터 나타난 음향 문제와 현장 송출 문제가 결국 공연



당시에도 벌어졌다. 호산나찬양대 지휘자 장세완 장로는 “어려운 상황에도 대원들이 기량을 여과 없이 펼쳐주었다”며 “담대하게 부활절 음악회를 성료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박태상 총무는 “혼란 속에서도 침착한 대원들의 모습에 감동했다”, “대학 시절에 맞는 마지막 부활절을 기념 음악회로 맞이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2023 부활절음악회 실황은 영락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이현지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현금 월드비전과 총회에 전달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구호를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전국교회와 협력해 모금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합심해 모은 구호현금 총액 231,790,442원 중 월드비전 5,000만원, 총회 178,160,442원, 대한성서공회 3,630,000원을 전달했다. 월드비전은 이재민 구호, 총회는 지진피해지역 주택 건축, 대한성서공회는 피해지역 성경 보급에 사용되게 된다.

‘거룩한 계승’…2023 한경직목사 추모예배·사진전



한경직목사 기념주간을 맞아 2023년 4월 14일 오후 2시 영락교회 본당에서 추모기념예배를 드렸다. 2000년 4월 19일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을 추모하며 드린 23주기 기념예배는 최승도 목사의 인도로 은퇴장로회장인 정상봉 은퇴장로의 기도, 교역자 일동의 특송(위 사진)이 이어졌다. 이날 ‘거룩한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오며 한경직 목사님의 애국과 사회봉사, 교육, 선교의 사명을 본받고 뜻을 이어가자고 메시지를 전했다.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달리 오늘 특송을 부른 현재 교역자들은 한경직 목사님을 뵙지 못한 세대로 아무쪼록 한목사님처럼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 갈 수 있는 귀한 목회자

들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이철신 원로 목사의 축도로 기념예배를 마쳤다.

한경직목사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는 4월 29일까지 <목회자 한경직>을 주제로 사진전 (아래 사진)을 열고 기념엽서 및 마그네틱 사진을 제작 판매했다.

취재 인미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1



2



3



4

①② 전시장 모습. 전시사진 중 ③ ‘1970년 유아세례 집례 후’ 모습 ④ 교인들과 인사하시는 한경직 목사님

2023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 살아있는 신앙 속의 여전도회 다짐

지난 3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2023년 여전도회 연합수련회가 있었다. 황숙희 권사(제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연합수련회는 김운성 위임목사의 ‘진정한 제자(누가복음 8:1~3)’라는 제목하에 말씀이 있었다. 특별히 강조된 말씀으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교회 규모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과 통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며, 결국 신앙은 나 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한 조직이 되게 하려면 조직과 제도를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 각자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본당을 가득 메운 1, 2, 3, 4여전도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국내·외 선교사업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지상



에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모인 조직으로서 성경 속의 여성들처럼 살아있는 신앙 속의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라는 김운성 위임목사의 말씀을 되새기며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를 마쳤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영락미술인선교회, 군부대 연합그림 봉사



지난 2023년 4월 14일(금) 선교부 문화선교 문화기획팀에 속해 있는 <영락미술인선교회>가 최전방의 군부대를 방문하여 연합그림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 장병들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조성휴 안수집사(문화선교부 차장), 이민하 안수집사(기획팀장) 외 9명의 영락 미술인선교회 회원은 황재영 목사의 축복기도로 출발해

1개 소대 33명의 장병들과 함께 아크릴물감으로 미술 작업을 했다. 먼저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 명화그림 안에 부대 건물과 교회를 추가한 밑그림을 준비했다. 이를 28개 조각으로 나눈 작은 캔버스를 각각 완성하여 하나의 큰 작품(170x133cm)으로 연결해 만드는 작업이었다. 각자가 개성이 넘치는 멋진 작품을 완성하였고 최전방의 긴장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봉사자들도 밝고 환한 장병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에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으며 액자로 마무리되어 부대 내에 설치되었다. 영락미술인선교회는 미술인들의 모임으로 매년 정기전을 통한 전도와 재능기부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에 힘쓰고 있다.

제공 최진희 권사(영락미술인선교회 회장)

친교부, 평생대학 3년여 만에 대면 개강



우리 교회의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영락의 신앙 유산을 전수하며 교제하는 평생대학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3년여 만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했다. 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만난 어르신들은 서로의 안부를 들으며 어린이들처럼 기뻐했다. 지난 4월 5일(수) 수요1부기도회를 마친 평생대학생은 점심식사 후 본당 각자의 지정된 반에서 리더 실버찬양팀의 경쾌한 리듬에 맞추어 체조와 찬양의 시간을 보냈다. 이어 개회예배는 박명일 전도사의 인도, 친교부장 양성환 장로의 기도, 평생대학찬양대의 특송이 있은 후, 김충섭 목사는 ‘하나님의 약속(아모스 9:11, 15)’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3년 만

에 열리는 평생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듯, 개인 예배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영·육의 강건함의 회복이 평생대학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반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취미활동반(합창, 드림스케치, 실버댄스, 우리춤 몸찬양, 난타, 하모니카, 손뜨개, 사물, 사진, 클래식 기타, 오카리나, 아코디언, 바둑, 탁구반)에서 활동하며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박영학 은퇴집사

사회봉사부, 중부지역 민생치안을 위한 조찬예배 드려

중부지역 민생치안을 위한 조찬예배가 영락교회 사회봉사부의 후원으로 4월 13일(목) 07:30분 선교관에서 열렸다. 이는 중부경찰서 관할지역내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들 협의회인 ‘교경협의회’주최로 드린 조찬예배로서 매년 3, 4월경에 드리는 예배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드린 예배는 중부경찰서 임원 및 직원 70여 명이 모여 드린 은혜로운 예배의 현장이었다.

김충섭 사회봉사부 목사의 기도와 바요나 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신당중앙교회 정영태 목사의 말씀이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사회봉사부장 김두형 장로는 중부경찰서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중부경찰서 최은정 서장은 좋은 식사와 장소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영락교회에 전했다.

제공 사회봉사부

故 최찬영 선교사 기념 안식관 현판 감사예식

우리 교회 후원으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512호에 해외 선교사를 위한 안식관이 마련됐다. 지난 4월 4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512호 앞에서 ‘고(故) 최찬영 선교사 기념 안식관 현판 감사예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순미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성실한 삶과 태도로 존경받으며 세계선교에 큰 역할을 한 최찬영 선교사님을 기념하여 고국을 찾은 선교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식관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고 최 선교사는 1955년 4월 한경직 목사님 추천으로 태국으로 파송된 제1호 선교사이다. 방콕제2교회 담임목사와 방콕기독교병원 원목으로 사역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서공회 총무로 약 15억 권의 성경을 배포했다. 또한



중국 남경에 성경 인쇄 공장을 설립해 2억 권 이상의 성경 인쇄와 보급에 기여했다. 은퇴 후에도 후학 양성과 후배들의 선교사역을 지원했으며 2021년 10월 4일 향년 9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제공 한국기독공보

2023 영락사회복지재단 협신예배…어깨동무 후원자 모집 캠페인 열려



영락사회복지재단은 4월 23일(주일) 베다니광장에서 후원 접수처를 열고 <어깨동무 후원자> 모집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성도들은 후원 부스를 찾아서 후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가득 채운 저금통을 기부하며 나눔의 기쁨을

누리며 성원을 보냈다. 영락사회복지재단 협신예배로 드려진 찬양 예배에서는 김충섭 목사가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이사야 58:6~11)’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사랑으로 비워낼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함께 나누고 함께 채워지는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서 재단 이사장 박홍준 장로는 13개 기관을 소개하며, “한경직 목사님께서 큰 뜻으로 세우신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성숙하고 더 많은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라고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2023년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일시 : 5월 5일(금), 10:30~15:30

장소 : 베다니홀, 50주년 기념관, 베다니 광장

대상 :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와 부모

활동 : 무지컬예배, 바이블빌리지(에어바운스, 코너활동, 성품애니메이션), 먹거리

회비 : 없음

문의 02)2280-0131, 010-5409-07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유아유치부

2023년 5월호 통권 591호

발 행 2023. 5. 1.

발 행 인 김운성

지도목사 강승훈

편 집 인 김태영

편 집 장 권오란

편집위원 박순복 김재원 이형일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성수 류정현

안동현 안하윤 이동훈 이해순 정재원

기 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교 열 계영희 이광미 유승효

발 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종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만남 e-book

mannam.youngnak.net



만남 웹진

www.youngnakmn.net



디지털미디어에서 만남 이용은 당분간 e-book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 아이폰 앱은 곧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말씀따라 행진하라 (민수기 9:23)

2023년

영락 가족 운동회

[3040Acts(MZ세대)와 함께하는 남선교회 연합체육대회]



일 시 : 2023년 5월 20일(토) 09:30~16:00

장 소 : 대광고등학교

추 친 : 선교부

주 관 : 1, 2, 3, 4 남선교회

후 원 : 1, 2, 3, 4 여전도회, 의료선교부, 안수집사회, 권사회,
부부선교회, 청년선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순종의 비유

Allegory of Obedience

조토 디 본도네(Giotto di Bondone), Fresco, Lower Church of San Francesco of Assisi, 1330

